

세 가지 마음 발의 사람들과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 사랑을 진정 믿어라.

작성일 : 2010. 02. 13. (토)

작성자 : 오 나래 (강남제일 교회 모델부)

(교회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본문 구절 읽어라. 읽고 기도하라.” 하셔서 본문 구절을 열심히 읽고 다시 기도하는 중 말씀해주셨습니다.)

나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나라.
사랑하는 자야.

보는 자와 듣는 자는 복 있는 자노라.
너희나라. 섭리사이나라.
너희는 역사를 보고 있으며, 중심 자를 보고 있노라.
너희는 역사를 듣고 있으며, 나와 예수의 말을 듣고 있노라.
아니더냐?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노라.

사랑하는 자야.
세상 속에 섭리사 사람들도 속해져서 살고 있지.
같은 날씨, 같은 경제, 같은 재난의 어지러움에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의 이유를.. 근본을..

그 모든 것을 같이 보고 듣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니 참으로 복이 있지?

그러나 섭리사 속에서도
진정 이역사와 나 여호와를 취하지 않는 자가 있노라.
본인의 것으로 진정 삼지 않는 자가 있노라.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사탄에게 나를 빼앗기는 자들.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나와 기쁨의 잔만 함께 취하며 고난의 잔 앞에 서는 나를 떠나갈 자들.
가시밭길에 뿌려진 씨앗같이 나를 그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취향에 맞게 받아들이는 자들.

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마.
길가의 마음 발을 가진 자들.
한마디로 쉬운 자들이나라.
천국의 비밀, 재림을 알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가라지들, 선생과 섭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쉽게 귀 기울여 넘어지는 자들이나라.

돌밭의 마음 발을 가진 자들은.
‘아멘’하나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속한다.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자들

여기에 속하나라.
기쁨 때만 나를 찾는 자들이 여기 속한다.
마치 애인과 사랑하는 건 좋아해도
위기와 어려움에는 애인 두고
도망가는 사람과 같은 자나라.
이런 자들은 아비한 자들이나라.
환란에 버티지도 못하고 쓰러질 자들이나라.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주관을 기준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나라.
나름이 들이지.
이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일거야.
라고 하는 자들
사망의 정신사상을 가진 자나라.
특히 이성 죄를 지은 자들.
괜찮겠지. 모르겠지. 생각하며 죄를 행한 자들 또한 가시밭 마음을 가진 자들이나라.

이런 세 가지 마음 발을 가진 자들은 대 환란에 쓰러질 자들이나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모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에 속한다면 발을 갈아라.
발을 갈아라.
걸러내고, 관리하여 좋은 마음 발,
옥토 발의 마음을 취하여라.
그래야 생명 농사의 결실
10배, 100배 일궈낼 수 있노라.

(제가 하나님.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더 사랑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이 진정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 사랑을 진정 믿는 자. 없다.
진정 없다. 있길 원하노라.
위대한 믿음이요. 진정 큰 자이나라.

(하나님. 왜 사람들은 들어야, 봐야 믿을까요?라고 여쭙습니다.)

육이니까.
아직 육을 가지고 있으니.
영, 혼, 육 모두 나를 느끼며
보고 듣길 원하고
사랑 확인 받길 원하는 것이나라.
너도 지금은 사랑으로 통하고 들으나
만약 못 듣고 못 느꼈다면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지 못하였을 것이나라.

(맞아요. 저는 의심도 많아서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전해줘.

선생이 30년 알려주고, 목 터져라 외쳤으나, 아직도 머리로 이론을 이해 하듯 받아들이는 자 많고 많다.

그러니 신랑, 신부의 뜨거운 사랑이

매일 같이 일어나겠느냐.

난 운다. 예수도 운다.

왜? 내 사랑 좀 알아달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 나도 너의 것이라고

가지라고 나를! 내 사랑을!

가지라고 해도 모르니 어찌 하나.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해요?라고 여쭙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안녕. 인사하면 안녕. 인사 해주듯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야지.

이 말에도 들어 깨달을 자는 깨달으나.

들어도 모르는 자들, 분명 있을 것이니라.

내 답답함 너도 어느 누구도 모른다.

오직 예수와 네 선생만 안다.

내 사랑 나의 전부 사랑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